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

-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10.10(목) 이탈리아 로마

-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조기경보시스템,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계획 소개
-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기여 의지 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10.10.(목,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금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네덜란드, 이집트 등) 등이 참석하여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임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노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여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파라 (044-203-5930)
		담당자	사무관	전기성 (044-203-5923)